

2018년도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 특별심포지엄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백재승

[개괄] I. 공동학술발표회 심포지엄 주제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산업의 현황과 방안은 다루었으나, 정작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 학회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기여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다루지 않음. 이번 심포지엄 주제로 생각하게 되어 의미가 있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II.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SWIFT 등 결제 기능에서 시작해서 큰 흐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음.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와 숙고 필요함. 특히 핀테크, 블록체인보다 실제로는 가상화폐 투자나 이용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가치평가나 ICO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시급하다고 봄.

[문제 제기] 공동학회의 의의에 대한 재고

- 처음 공동학회를 시작한 취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음. 단순히 5개 학회가 모여서 학회를 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임.
- 미국이나 유럽의 통합학회를 참고하되 이를 좇지만 말고 공동학회의 근본적 취지를 다시 살펴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을 찾아가야 함.

- 문제점이 오랫동안 되풀이 됨
- 학회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으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이나 5년 전, 10년 전이나 비슷한 양상임. 이전에 이미 거론되어 온 근본적인 개선책 요구는 차치하고라도 변화하는 재무금융학 주변의 상황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 개최하는 것을 숙고해 보아야 함.

- 4~5월 특히 5월은 일년 중 여러 행사도 많고 학회도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지만 예전처럼 공동학회가 상징성이 있을 때는 5월 말 행사가 의미를 가짐.

학회든 다른 포럼이든,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아래 여섯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봄

- ① 대중성, ② 접근성, ③ 작품성, ④ 만족성, ⑤ 상징성, ⑥ 차별성

[1] 대중성

- 얼마나 많은 교수 및 연구자들이 이 학술발표회에 대해 다른 일정보다 선호하게 되는 소위 ticket power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점차 하향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방안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 실무자 세션을 부활하여 실무업계의 연구자를 적극 초빙하는 방안 도입

[2] 접근성

-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학회 홍보가 되고 있고 개최지의 접근성은 어딘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임. 예산문제, 회비책정문제, 등록울 및 개인부담비용 등을 감안하면 서울이나 대전 등이 나올 것임. 특별개최지 개최 여부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작품성

- 학회에 왔을 때 논문의 성과를 높이는 장치는 되어 있거나, 되어 있다면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참여하는 각 학회는 공동학회논문을 통해 투고 논문수 및 게재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한 노력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임.
(한 예로, 이미 나왔듯이 주관학회가 특별호를 발행하여 공동학술발표회 우수논문 게재)

[4] 만족성

- 논문을 공동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통해 연구자는 토론 등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는지 규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경품행사, 관광힐링 등 잠시나마 학회를 통해 여유를 찾을 방안에 대한 검토
즉, 경품행사 학회행사가 교수, 연구자의 교류를 논문을 통해 교류하고 보호 또는 선호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런데 오히려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음.

[5] 상징성

- 4~5월은 일년 중 여러 행사도 많고 학회도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지만 예전처럼 공동학회가 상징성이 있을 때는 5월 말 행사가 의미를 가짐.

- 타 학회처럼 기업대상 시상을 도입해서 흥행성을 높이고 용역 및 연구 사업이 일부 연구자에게 집중된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대표성을 띤 학회의 위상을 가지면 좋을 것임.

[6] 차별성: 타 학술대회와의 차별화

- 8월 경영통합학술대회가 생기고 5개 학회 이외 학회가 다수 개최되어 학회의 집결력이 분산되었으니 이를 재 결집하려면 차별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특별심포지움 주제에서 찾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결제 기능에서 시작해서 큰 흐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데 1금융권, 2금융권이냐의 영역구분도 없음. 결제는 은행권, ICO는 자본시장영역이니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는 universal banking 하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더욱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와 숙고가 필요함. 개별학회에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합학회에서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어주어야 함. 북한 및 통일 문제처럼 전통적인 재무이슈가 아닌 주제도 과감히 선정하는 개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금융산업 발전 방안: 블록체인 - 핀테크 소고에 대한 토론]

- o 블록체인 - 핀테크/빅데이터는 정통 재무금융 영역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 기업재무와 파생상품을 예로 들었을 때, 투자의사결정, 배당, 자본조달, 자본구조, 지배구조, 가치평가 등의 주제와 핀테크-블록체인은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별개인가, 연장선상인가?
 -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결제 기능에서 시작해서 큰 흐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데 1금융권, 2금융권이냐의 영역구분도 없음. 결제는 은행권, ICO는 자본시장영역이니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는 universal banking 하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더욱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와 숙고가 필요함.
 - 특히 핀테크, 블록체인보다 실제로는 가상화폐 투자나 이용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가치평가나 ICO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시급하다고 봄